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동향과 발전 전망*

서 종 혁
(한경대학교 연구교수)

1. 서론

세계의 유기농산업은 2000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하여 선진국에서는 과거 틈새 시장에서 이제는 주류 시장을 선도하는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7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불황기에도 유기농산업은 판매 신장률이 연평균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행농업에 비하여 탄소 배출량을 40%이상 감축하여 성장 잠재력을 갖춘 미래의 녹색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유기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630억 달러(한화 환산 약 69조원)이며 과거 2000년 초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증가는 오세아니아와 남미의 생산증가와 EU시장의 높은 소비 성장에 기인하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유기농산물의 경작 면적 증가는 시장 규모의 증가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유기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가공 상품으로 변화되면서 시장 거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세계 유기농경지는 3천7백만 ha로 1999년의 1천1백만ha에서 3.4배 증가한 수준이다.

* (chysuh@hanmail.net).

세계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면적이 큰 국가로는 호주(1,200백만 ha, 2008년 기준), 아르헨티나(380만ha, 2011년), 미국(195만ha, 2008년), 중국(190만ha, 2011년), 스페인(110만 ha, 2011년) 순이며 이중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시장에서 수출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농경지 중 유기농 비율이 큰 국가로는(2011년 기준, 10% 이상) 포클랜드(35.9%), 리히텐슈타인(29.3%), 오스트리아(19.7%), 프랑스령 기아나(17.5%), 스웨덴(15.4%), 에스토니아(14.8%), 사모아(11.8%), 스위스(11.7%), 체코(10.8%), 라트비아(10.4%) 순이다. 이 가운데 7개 국가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기농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데는 시장요인과 제도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시장요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강과 웰빙(well-being) 중시의 소비자 트렌드를 들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생태환경의 파괴와 식품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은 관행농업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시장에서부터 먼저 나타나고 있다. 안전성이 보장된 친환경적 상품이 일반상품에 비하여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기농산업의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해준 제도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세계유기농시장을 선도하는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과거에는 유기농산업의 발전을 시장에 맡기는 최소의 산업 정책을 채택하고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증과 라벨링(Labeling)제도 확립에 주력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유기농산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확대와 유기농산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해 생산농가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기농산업이 이제 주류 시장의 성장산업으로 그 위치가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아직도 발전 초기 단계로서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1%를 겨우 넘어선 단계에 있다. 유기농업의 전 단계인 무농약 생산면적을 합하면 총면적이 11만 ha(2010년 기준)에 달하고 이는 전체 농경지의 약 6%를 차지하는 면적으로 지난 10년 전에 비하여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면적이다.

앞으로 무농약 생산면적이 유기농업으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도 유기농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며 아시아서는 가장 선두에 위치한 국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 부문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적 방제 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며 가공식품의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 수요의 창출

이 절실히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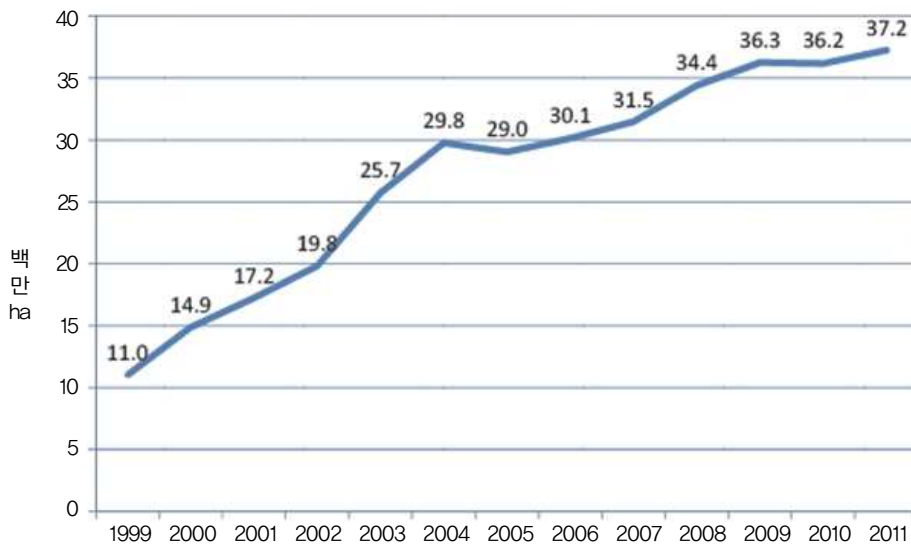
이 글은 유기농산물과 농식품 산업의 대륙별 성장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유기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에 인용된 대부분의 자료는 FIBL(스위스 소재 국제유기농연구소)과 IFOAM(독일 소재 세계유기농운동연맹)이 공동으로 2013년에 발간한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1」에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2.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2.1. 세계 유기농경지 변화

전 세계 유기농 재배면적은 지난 10여 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1999년의 1,100 만 ha에서 2011년에는 약 3.4배에 해당하는 3,720만 ha까지 이르렀다. 특히 1999-2004년 사이에는 급속히 신장한 반면 그 이후는 완만한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세계 유기농 면적의 증가 (1999-2011)



자료: FIBL & IFOAM, Survey 2013.

지난 3년간(2008-2011년) 대륙별 유기농 면적의 변화를 보면 2008년의 약 3,500만 ha에서 2011년에는 약 3,700만 ha로 5.6%의 증가를 보였다. 대륙별로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각각 28.7% 와 25.1%의 높은 증가를 보였고 아시아와 북미는 10% 내외의 증가를 보였다<표 1 참조>.

표 1 대륙별 유기농 면적의 변화 (2008-2011년)

지역	유기농경지(ha) 2008년 (B)	유기농경지(ha) 2011년(A)	면적 증감(ha)(C= A-B)	비율 증감%(C/B)
아프리카	857,662	1,073,657	215,995	25.1
아시아	3,351,068	3,706,280	355,212	10.6
유럽	8,263,740	10,637,128	2,373,388	28.7
남미	8,065,147	6,857,611	-1,207,536	-14.5
북미	2,577,502	2,790,162	216,660	8.2
오세아니아	12,046,784	12,185,843	139,059	1.1
총계	35,255,786	37,245,686	1,989,900	5.6

자료: FIBL/IFOAM, Survey 2013.

2.2. 대륙 및 국가별 유기농산물 생산 면적

세계의 유기 농지는 2011년 기준 약 3,725만 ha(전환기 토지 포함)이며 이는 전체 농경지의 0.9%에 해당된다. 대륙별로는 오세아니아(약 1,219만 ha)가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이어 유럽(약 1,064만 ha)과 남미(685만 ha)순이다<표 2 참조>.

표 2 대륙별 유기농경지 분포(2011년)

지역	유기농경지 (ha)	전 세계면적 대비 (%)
아프리카	1,073,657	2.88%
아시아	3,706,286	9.95%
유럽	10,637,128	28.56%
남미	6,857,611	18.41%
오세아니아	12,185,843	32.71%
북미	2,790,120	7.49%
총계	37,245,686	100.00%

주: 유기농경지 면적에는 유기농 전환기 면적도 포함됨, 그러나 양식어업, 야생 채취 및 목초지는 불 포함

자료: FIBL-IFOAM, 2013.

유기농경지와는 별도로 양봉이나 양어와 같은 비경작 자연물 채취(wild catch) 면적을 보면 총면적이 유기농경지와 비슷한 3,200만 ha이며(2011년 기준) 대륙별로는 EU(1,330만 ha), 아프리카(1,190만 ha), 아시아(350만 ha), 라틴아메리카(310만 ha)순으로 분포되어 있다<그림 2 참조>. 비 경작 자연물 채취 인증 유기농식품은 최근 들어 그 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로 벌꿀, 양어, 그리고 야생 딸기(wild berry)나 약초(herb)를 채취나 이의 가공품으로 소비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생산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경지가 큰 국가로 보면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순이다. 호주는 가장 많은 유기농경지를 보유한 국가이긴 하지만, 그 중 97%는 광활한 축산용 방목지이다. 아르헨티나가 2위이며, 미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국을 합치면, 2,750만 ha에 달하고, 이는 전 세계 유기농경지의 3/4을 차지한다. 전 세계 농경지에서 유기농 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9%이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대륙은 오세아니아(2.9%)이며, 유럽(2.2%), 남미(1.1%)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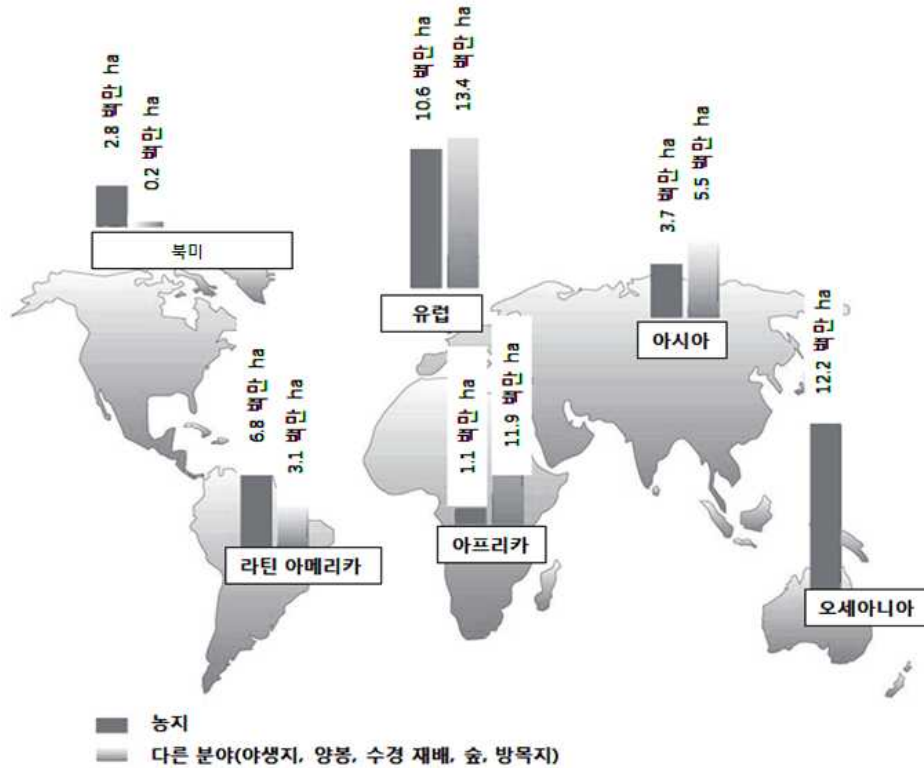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유기농경지비율(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의 비율) 높은 10개 상위권 국가들의 분포를 보면 유럽이 7개 국가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도서지역이다. 유기농지비율이 높은 국가는 포클랜드(35.9%), 리히텐슈타인(29.3%), 오스트리아(19.7%), 프랑스령 기아나(17.5%), 스웨덴(15.4%), 에스토니아(14.8%), 사모아(11.8%), 스위스(11.7%), 체코(10.8%), 라트비아(10.4%) 순이다<그림 1 참조>. EU 27개국의 유기농경지비율은 4.7% 이상이며 그 외 다른 지역의 유기농경지비율은 1% 이하이다.

표 3 대륙별 전체농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경지비율(2011년)

지 역	유기농경지 (ha)	전체 농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프리카	1,073,657	0.1%
아시아	3,706,280	0.3%
유럽	10,637,128	2.2%
남미	6,857,611	1.1%
오세아니아	12,185,843	2.9%
북미	2,790,162	0.7%
총계	37,245,68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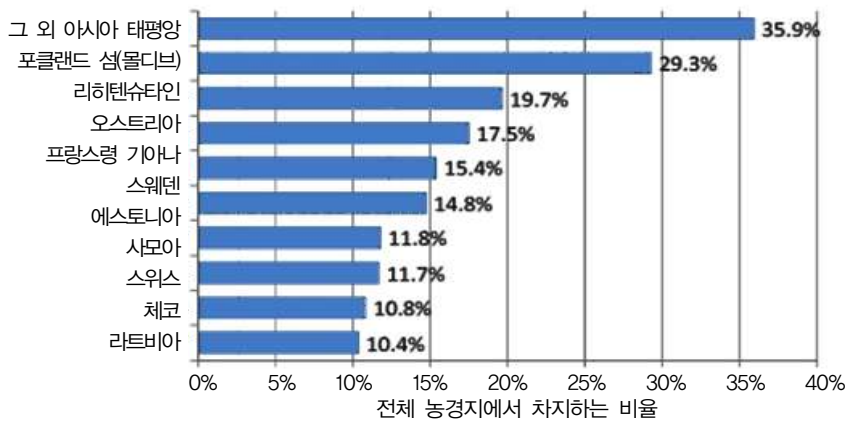
자료: FIBL/IFOAM Survey 2013, 전체 농경지의 비중(당 조사에 포함된 국가만 포함).

그림 2 유기농경지와 기타유기생산(양봉, 양어 등) 면적(2011년 기준)



자료: FBL - IFOAM 조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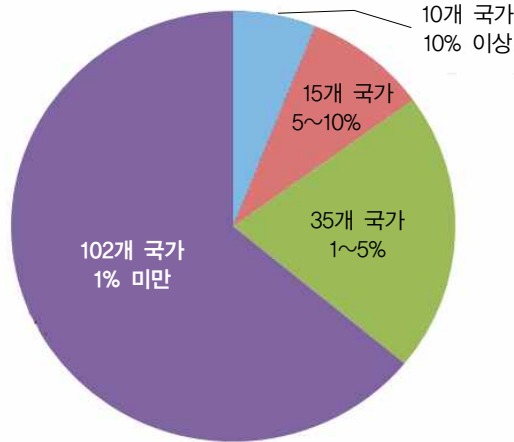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비율이 높은 10개 국가(2011년)



자료: FBL & IFOAM, Survey 2013.

유기농경지비율의 분포를 보면 10%이상 국가가 10개국(전체 국가의 6%)이며, 5-10%에 속하는 국가가 15개국(9%), 1-5%국가가 35개국(21%) 그리고 나머지 102개 국가는 1% 미만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세계 각국의 전체 농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율 분포 (2011년 기준)



자료: FIBL & IFOAM 조사 자료, 2013.

2.3. 유기농업의 유형별 면적 분포

대륙별로 유기농경지와 비농경지 분포를 보면 농경지는 오세아니아와 유럽에 많은 면적이 분포되어 있고 야생 채집 및 방목지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표 4 대륙별 유기농경지 및 비 농경지 분포(2011년)

국가	농경지	야생 채집	수산 양식	산림	기타 방목지등	총계
아프리카	1,073,657	11,088,694			840,000	13,002,350
아시아	3,706,280	5,607,964	15,105	24,531	74	9,353,954
유럽	10,637,128	11,569,083		17,984	6,385	22,236,962
남미	6,857,611	3,079,470	4			9,937,094
오세아니아	12,185,843	1,564				12,187,407
북미	2,790,162	225,435				3,015,597
총계	37,245,686	32,572,229	15,109	42,516	846,459	69,728,370

자료: FIBL/IFOAM, Survey 2013.

고 있다. 수산 양식은 아시아지역이 가장 발달하였다<표 4 참조>.

유기농 경작용지의 대부분은 쌀 같은 곡식 생산과, 가축사료(green fodder)용 및 채소 재배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년생 작물(permanent crops)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년생 작물(주로 열대 농산물과 온대 과수)로는 커피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올리브, 코코아, 견과류 및 포도 순으로 재배면적이 많다.

3. 대륙별 유기농업의 특징

3.1.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유기농 생산면적(인증 기준)은 전 세계의 3% 수준이며 100만 ha가 조금 넘는다. 농가수로는 약 54만 1천 가구가 유기농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 유기농업 면적이 가장 큰 국가는 우간다이며(면적 약 22만 ha) 아프리카 전체의 약 22%를 차지한다. 전체 농경지 중 유기농경지비율이 높은 국가는 도서 국가인 사오 토메 프린시페(Sao Tome Principe)로서 그 비율이 8%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유기농산물은 대부분 수출 목적으로 생산되며 커피, 올리브, 코코아, 유지용 곡물과 면화이며, 그 대상은 유럽시장이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의 유기농업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지역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빈곤문제, 그리고 불규칙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유기농업이 정책결정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생태 유기농 행동계획(Action Plan of EOA) 시범사업이 6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이상 동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서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대상 국가이다.

2012년 5월 잠비아 루카사에서 개최된 제 2차 아프리카 유기농 컨퍼런스에서는 “아프리카 발전의 의제에 유기농업을 핵심으로 하자”는 루카사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참고로 다음번 아프리카 유기농 컨퍼런스는 2015년에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2. 아시아

아시아는 약 600만 명(이중 인도가 550만 명)의 농가가 유기농업에 참여하고 있고 경작 면적은 약 370만 ha이며 이는 전 세계 면적 대비 약 10%이다(2011년 기준). 아시

아 국가 중 생산면적이 큰 국가는 중국(약 190만 ha)과 인도(110만 ha)이며,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 경지비율이 높은 국가는 티모르 레스테(Timor-Leste)로서 그 비율은 약 7%에 달한다.

아시아의 유기농 생산면적은 2010-2011년 기간 중 약 100만 ha가 확대되었고 이의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에서 증가한 면적이다. 아시아의 유기농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아시아 지역의 유기농 생산과 소비는 지역 내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된다. 경제 수준이 높은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의 유기농식품의 주요 소비국으로서 국내 소비량에 비하여 생산량은 작아 부족분을 수입으로 대체한다. 수입품의 대부분은 가공품으로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유럽으로부터 수입한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유럽이나 북미 시장의 수출을 목적으로 유기농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시아 유기농업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지난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 17차 세계유기농 대회이며 이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 간 교류와 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3월 유기농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제3자 인증과 구별되는 참여적 인증제도(PGS)의 확산과 더불어 지역 내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3. 유럽

유기농 생산면적은 1,060만 ha이며(2011년 기준) 2010년과 비교하여 약 60만 ha가 증가하였다. 생산에 참여한 농가는 약 29만 호이다. 유럽 전체는 총 농경지 대비 유기농 경지가 2.2%이며, EU만 보면 5.4%로서 지역단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유럽의 유기농산물 생산 면적은 전 세계 유기농 면적의 약 29%를 점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 유기농 경작면적이 큰 국가를 보면 스페인(160만 ha), 이탈리아(110만 ha), 독일(100만 ha) 순이며 전체 농지대비 유기농경지비율이 10% 이상인 국가는 리히텐슈타인(29.3%), 오스트리아(19.7%), 스웨덴(15.2%), 에스토니아(14.8%), 스위스(11.7%), 체코(10.7%), 라트비아(10.4%) 순이며, 소비규모는 215억 유로로 전년대비 약 9% 증가하였다. 시장규모가 큰 국가는 독일(66억 유로), 프랑스(38억 유로), 영국(19억 유로)순이다.

3.4. 라틴 아메리카

이 지역에서는 약 32만 농가가 690만 ha에 달하는 농지를 유기농으로 경작하고 있

다(2011년). 이는 전 세계 유기농 면적의 18%이며, 지역 내 총 농경지 면적의 1.1%에 해당된다. 주요 유기농 국가는 아르헨티나(420만 ha), 우루과이(90만 ha), 브라질(70만 ha) 등이며, 유기농 비율이 높은 국가는 포클랜드(35.9%), 프랑스령 기아나(17.5%), 도미니카 공화국(9.5%)이다.

이 지역 유기농산물은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된다. 전체의 약 85%가 EU, 미국 및 일본으로 수출된다. 열대 산악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주요 수출 유기농산물은 커피, 카카오, 바나나, 퀴노아(quinua)¹⁾이며, 아르헨티나와 같이 토지 조방적인 목축 농업국가의 유기 농축산물은 육류와 양모이다.

유기농식품의 국내 소비 시장은 최근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면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코스타리카, 남미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시장이 가장 발달된 국가는 브라질로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다. 주로 도로변의 농민시장과 농민 협동조합이 유기농산물의 국내 시장의 판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의 뒤를 이어 최근 에콰도르,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관심 있는 소비자를 겨냥하기 위한 대체인증방식과 판매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3.5. 북미주

캐나다가 80만 ha이다. 북미의 유기농 면적은 전 세계의 7%, 그리고 지역 내 전 농경지 면적의 0.7%를 유기농업이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유기농산업은 2011년 소비신장에 힘입어 전년(2010년) 대비 약 9.5% 성장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15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농식품이 약 292억 달러이며 나머지가 비 식품류이다. 2011년도는 전년 대비 약 25억 달러의 판매액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과일과 채소가 이러한 매출 증가를 선도하였다. 2010년 대비 10% 이상 매출 신장을 보인 품목은 육류, 어류 및 가공류 제품이다.

캐나다의 유기농시장은 소비의 꾸준한 성장과 품목의 다양화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즉, 유기농식품이 관행 농식품 소매 시장에서 주류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비 식품 분야(화장품, 의류 등)도 성장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280만 ha가 유기농으로 이용

1)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의 고원에서 지리는 곡물 쌀보다 조금 작은 둥근 모양으로 조리하기 쉽고 단백질·녹말·비타민·무기질이 풍부하여 영양면에서 우유에 버금가는 곡물로 인정되었음. 양씨국의 '슈퍼곡물'로 불리던 퀴노아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에콰도르·페루·볼리비아 등 안데스 지역의 중요 농산물이었으나 근세에 와서 겨우 일부 농가에서 지급자족으로 명맥만 유지해왔음. 그 후 영양학적 가치가 새로이 평가되면서 세계적인 식품회사와 남아메리카 민간단체들의 품종개량과 보급노력에 힘입어 198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국제곡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되고 있으며 이중 미국은 약 200만 ha를 차지한다.

미국 유기농업에서 2012년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미국과 EU 간 체결한 인증의 상호 간 동등성 인정(equivalency arrangement)이다. 그리고 캐나다와 스위스가 비슷한 같은 협약을 2012년 말에 체결하였다. 이러한 동등성 인정은 양국 간의 유기농식품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동등성 협약을 통하여 앞으로 유럽국가와 북미 국가 간 교역이 증대될 전망이다.

3.6. 오세아니아 주

이 지역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의 작은 도서 국가들이 포함된다. 총 유기농 면적은 약 1, 220만 ha 이며 농가 수는 14,000가구이다(2011년 기준). 전 세계 유기농 면적의 33%를 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 농경지 면적의 2.9%가 유기농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유기농업 면적의 98% 이상이 호주에 분포한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최근 해외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유기농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시장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1억5 천만 달러, 그리고 뉴질랜드는 3.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2011-2012년 기준).

4. 요약 및 결론

2000년대 들어 소비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면서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의 한계인 환경과 지속 가능성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그리고 농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세계의 유기농업의 경작면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약 3.4배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3,725만 ha에 달한다. 자연 채취, 양어 등 비경종 유기농업 면적 약 3,248만 ha을 고려하면 총 유기 농산식품 생산면적은 약 6,973만 ha이다.

유기농업 경작면적이 가장 큰 대륙은 오세아니아(약 1,219만 ha), 유럽 (약 1,064만 ha) 그리고 중남미(685만 ha)지역 이며 전체의 3/4이상을 점하고 있다 (유기 경작지 기준). 비 경작 유기농식품 생산면적이 큰 대륙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체의 약 70%를 점한다.

빠른 산업 성장률과 생산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 유기농업은 전체농경지의 1% 이하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기농식품이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틈새시장의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차 상품인 농축산물은 생산면적과 비례하여 판매가 이루어져 성장 속도가 크지 않으나, 가공 상품은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형성되어 판매액 성장속도가 훨씬 크다. 결국 선진국 시장의 성장은 가공품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기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는 대륙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북미주와 유럽대륙은 소비가 빠르게 신장하면서 생산면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와 중남미 지역은 내수보다는 수출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생산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대륙은 아직도 틈새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을 빠르게 대체하는 국가는(유기농경지 비율 10% 이상 국가) 전체 10개국 중 7개국(리히텐슈타인 29.3%, 오스트리아 19.7%, 스웨덴 15.4%, 에스토니아 14.8%, 스위스 11.7%, 체코 10.8%, 라트비아 10.4%) 유럽대륙에 위치하며 대부분이 농업 소국으로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국가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아시아 대륙의 일본, 한국, 대만 등이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유기농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국가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정책도 유기농 면적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0년간 유럽 내에서 정책의 차이로 국가 간 유기농업의 발전 격차를 가져다준 경우이다. 즉, 유기농 면적비율이 매우 큰 오스트리아는 지역개발 예산의 68%를 친환경, 유기 방식의 농업육성에 투입하고 있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이후 유기농업을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 성장(green growth) 산업으로 보고 유기농경지확대, 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분야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네덜란드도 유기농 발전 잠재력을 일찍이 인식하고 재배면적 확대, 관행농과 유기농을 연계한 기술 개발 및 정부 구매에서 친환경, 유기농산품을 우선하는 녹색 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은 유기농 학교급식의 확대, 현장 중심의 유기농기술 개발과 확산에 대한 보조, 유기농 식생활 교육지원 및 유기농 전환지원 등 매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영국은 예외이다. 최근까지도 영국은 농업 생산 방식과 식품의 선택에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유기농산업의 선두 그룹에 끼지 못하게 되었고 한발 더 나아가서 녹색경제(green economy)분야에서도 다른 국가들에게 뒤처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유기농산물 생산과 면적의 확대, 나아가서 발전의 차이가 대륙별/국가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가 유럽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유기농 발전할 여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EU의 많은 국가나 미국까지도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산업/지역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유기농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 EU나 북미는 가공 식품의 개발을 통하여 소비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하여 제도권 소비시장(예: 학교급식)이나 생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채택한 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다 중점을 둘 분야는 유기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식품개발과 시장 확대, 그리고 학교급식과 같은 제도권 시장의 소비확대이다. 앞으로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중단될 경우 일부농가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유기농산물 생산증가 대비책으로 소비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창길 외 2인. 2012.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친환경농업 제3차 5개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 서종혁외 3인, 2012, “세계 유기 농산업의 현황과 전망” 유기농업과 토종자원, 대신문화재단 연구총서 2.
- IFOAM. 2010. 세계유기농대회 사전학술대회 자료집 등.
- IFOAM. 2011. 세계유기농대회 각종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
- IFOAM and FIBL. 2013.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1」 .